

‘콩 수입 규제’ 두부공장 멈출 판… 中企 “25만t은 풀어야”

전국 6개 연식품조합 기자회견

올해 식용 대두 공급 22만t 그쳐
업계 필요 물량보다 약 3만t 부족
자체 수입 댄 관세 487% 부담
업계 할당관세·국영무역 폐지 촉구
원료난 장기화 댄 두부값 인상 우려

농림축산식품부의 탁상 행정으로 ‘국민 식품’인 두부를 제조하는 중소기업들의 공장이 추석 이후 자칫 멈출 위기다.

특히 두부의 주원료인 수입산 식용 대두(콩)를 정부가 수십년째 ‘국영무역’ 등으로 묶어놓으면서 매년 가을마다 부족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두부 제조 중소기업에는 식용 대두 수입 확대를 통해 연간 최소 25만톤(t) 이상을 시장에 공급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 요청했다.

물량이 한정돼 있는 국산콩을 이용하려며 콩 수입을 줄이면서 애년 중소기업들만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

수입 콩이 아닌 국산 콩으로 두부를 제조할 경우 현재보다 3~4배 이상 가격이 올라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전국 6개 지역에 있는 연식품공업협동조합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공용 수입 대두에 대한 할당관세 0% 적용 ▲수익이



전국 6개 지역 연식품 중소기업협동조합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수입콩 공급 부족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중기중앙회

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공용 수입 대두에 대한 할당관세 0% 적용 ▲수익이 익금 폐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독점적 국영무역 구조 폐지 등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날 자리에는 김석원 광주전남연식품 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중기 중앙회 부회장을 비롯해 최선운 강원특별자치도연식품협동조합 이사장, 이학환 경인서울콩 가공협동조합 이사장, 이재표 대구경북연식품협동조합 이사장, 김홍고 대전세종충남 대두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은수 부산 경남연식품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자리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대한민국 서민의 대표 먹거리인 두부를 만드는 공장들이 당장 내일 쓸 콩이 없어 멈춰 서기 직전”이라며 “국내 두부공장들이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선 매년 최소 25만t의 수입 대두가 필요하지만 올해 정부의 공급 계획은 이보다 3만t이 부족한 22만t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한 수급 차질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정부의 쿼터 통제가 불러온 인재이자 중소기업 생존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정책적 차별”이라고 꼬집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4년 당시 25만

8213t(계획 기준)을 수입했던 식용 대두는 2025년 23만9630t, 2026년 22만3899t으로 점점 줄고 있다.

올해의 경우 수입 식용 대두는 WTO 물량을 통해 16만8332t, FTA 물량을 통해 6만3645t이 각각 들어올 계획이다. 이 가운데 aT를 통한 국영무역은 14만9350t으로 전체 수입 대두의 66.7%를 차지하고 있다.

최선운 이사장은 “국산콩 사용을 늘려 농가를 보호한다는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실상은 전혀 다르다. 수입콩은 정부가 100% 공급한다. 부족하다고 우리가 해외에서 수입할 수도 없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콩을 수입하면 관세가 무려 487%다.

콩이 부족해 두부 공장이 멈추면 정부가 손실을 책임질 것이다. 10월초 정도면 대부분의 중소기업 두부 공장의 원료가 바닥난다”고 토로했다.

업계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수입콩에 대한 관세가 전혀 없다. 특히 일본은 관련 단체들이 직접 해외에서 계약재배 형태로 대두를 공급받고 있다.

김석원 이사장은 “식용유의 원료인 착유용 대두는 할당관세가 없다.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정부가 수입 콩을 쿼터로 배정하는 것도 문제지만 내일 필요한 물량을 오늘 주문하는 중소기업들은 물량이 소진되면 두부 제조를 못하느냐. 정부의 결단이 낮아지면 그 피해는 중소기업 폐업과 서민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부 제조 중소기업들은 사실상 수입콩에 대한 관세 개혁과 수입 유통구조 개혁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김기문 중소기업회장은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무척 높다. 특히 건강식품인 한국 두부에 대한 해외에서의 인기는 폭발적이다. 이때문에 정부는 두부의 활동영역을 넓혀줘야 한다. 중소기업계의 희망사항을 정부가 적극 검토해 빨리 문제를 풀어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LS전선, 美 첨단소재 단지 부지 계약

해저케이블 포함 현지 14억弗 투자
구리봉·자석선·히토티 영구자석 생산
호주·베트남 연계 非中 공급망 구축

LS전선의 미국 버지니아주 체사피크 첨단소재 단지 구축이 부지 계약을 시작으로 본격에 오른다. 인근 해저케이블 공장도 함께 두 생산거점에 약 14억달러를 투입해 미국 내 생산기반을 넓히고 비(非)중국 히토티 공급망 구축에도 나선다. 9일 미국 버지니아주 지역방송 ‘13NEW SNOW’에 따르면 LS전선은 체사피크그린브라이어 지역에 추진 중인 6억8900만달러 규모 첨단소재 단지의 부지 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최근 수목 제거 작업에 들어갔다. 올해 말까지 부지 거래를 마무리한 뒤 이르면 내년 초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완공 목표는 오는 2030년이다.



지난해 12월 버지니아주 체사피크(Chesapeake)시 히토티 자석 공장 투자 발표에서 폴 대버(Paul Dabbar) 미국 상무부 차관, 글렌 영킨(Glenn Youngkin) 버지니아 주지사, 구본규 LS전선 대표(왼쪽 3번째부터)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LS전선

단지에는 구리봉과 자석선, 히토티 영구자석 등 3개 사업이 들어선다. 구리봉은 구리를 재활용해 케이블용 소재로 만들고, 자석선은 전기모터용 구리 권선으로 쓰인다. 히토티 영구자석은 전기차(EV)와 풍력발전기, 로봇, 전투기, 도심항공교통(UAM) 등에 쓰이는 핵심 소재다.

LS전선은 히토티 영구자석 사업에서 원료 단계부터 비중국 공급망 구축에 나

선다. LS에코에너지는 지난 3월 호주 히토티 기업 라이너스와 공급망 협력에 합의했다. 7월에는 양사가 각각 3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인수하는 상호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라이너스의 원료 공급에서 LS에코에너지의 베트남 히토티 금속 생산, LS전선의 영구자석 제조로 이어지는 밸류체인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

한화큐셀

기후산업국제박람회 참가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 공개

한화큐셀이 태양광 모듈을 통한 전력 생산부터 친환경 전력 공급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에너지 솔루션을 선보인다.

한화솔루션 큐셀부문은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BEXCO)에서 열리는 ‘2026기후산업국제박람회(World Climate Industry Expo)’에 참가한다고 9일 밝혔다. 한화큐셀은 친환경 에너지가 생산돼 수요처에 공급되는 과정을 순서대로 소개하고 각 단계에서 자사의 에너지 솔루션이 수행하는 역할을 보여주는 전시 부스를 운영한다. /원관희 기자

중기부 산하기관장, 현장 찾아 中소지원 행보

권형택 기보 이사장, 기업애로 청취
김영신 기정원장, 기술개발 등 지원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 공사현장 점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장들이 잇따라 중소기업 현장 곳곳을 찾아 애로 청취 등을 하며 기업 지원에 나섰다. 9일 관련 기관들에 따르면 권형택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은 부산시 기장군에 위치한 전력반도체 제조기업 제엠제코를 방문해 영업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권 이사장은 규제혁신 전문기와 함께 생산비용 증가와 생산기간 장기화 등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확인하고, 입주규제의 합리적인 개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기보는 제엠제코의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해 전력반도체 패키지 공정기술 개발과 제품 양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왔다.

권 이사장은 “취임 후 첫 기업현장방문을 통해 기업이 실제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이 무

엇인지 살펴볼 수 있었다”며 “기보는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원장도 반도체 공정용 소재·부품 전문기업 씨엠티엑스(CMTX)를 방문, 반도체 소재·부품 분야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내외 시장진출 방안 모색에 나섰다.

김 원장은 “기정원은 앞으로도 기술 경쟁력을 갖춘 지역 우수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 성장을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이날 전남 광양시 전남연수원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해 건설공사 발주자로서 공사 진행 상황과 전반적인 현장 안전 관리 상태를 점검했다.

강 이사장은 “전남연수원이 지역 중소기업인의 역량 강화를 도울 실질적인 배움터로 조성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소상공인 총생산지표’ 고도화 착수

소진공,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의 경제적 가치 측정체계 고도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소진공은 지난 8일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소상공인 경제적 가치 측정 체계 고도화 및 정례화 방안 연구’ 2차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자문회의는 ‘소상공인 총생산지표’의 개념적 타당성과 산출체계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향후 정례적인 지표 산출과 제도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소진공은 지난 7월 24일 소상공인 총생산지표 구축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을 출범하고, 소상공인이 국가경제에서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연구를 본격화했다.

이번 2차 자문회의에는 소상공인정책 연구소를 비롯한 한국은행, 국가데이터처, 한국경제학회, 한국응용경제학회 등 관계기관 및 학계 전문가 15명 내외가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그동안 진행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정례화 및 제도적 활용을 위한 조사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승호 기자

코웨이, ‘제로 음식물 처리기 미생물형’

29일까지 사전상담 예약 진행

코웨이가 신제품 ‘제로 음식물 처리기 미생물형’의 사전 상담 예약을 이달 29일까지 진행한다. 9일 코웨이에 따르면 제로 음식물 처리기 분쇄형에 이어 미생물 분해 방식의 신제품을 선보이며 고객이 주방 환경과 사용 방식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제품 라인업을 확대한다.

이달 말 출시 예정인 제로 음식물 처리기 미생물형은 제품 내부의 미생물이 음식물 쓰레기를 지속적으로 분해·감량한

다. 음식물을 따로 모아두거나 한꺼번에 처리할 필요 없이 생길 때마다 수시로 투입할 수 있다. 분해 후 남은 부산물은 1~3개월에 한 번씩 적정량만 털어내어 배출하면 된다.

설치 후 별도의 미생물 배양시간 대기 없이 음식물을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사용 편의성을 높였다. 대용량 활성탄과 코웨이의 한국 전통 장류에서 추출한 특허 출원 중인 미생물로 음식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유해가스 8종을 99% 제거한다. /김승호 기자